

2025년 국제 현충일 쉬임 특별 집회 표어

성경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거룩한 의미에서
우주적인 한 쌍의 로맨스이다.
이 한 쌍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은 신부이다.
이 로맨스가 주님의 회복의 목표이다.

회복 안에서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하시는 주님의 참된 일이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말하는 지속적인 기질상의 거룩하게 함이 없이는
신부가 준비될 길이 없으며,
따라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도 성취될 길이 없다.

신약의 용법에 따르면, '성숙'이라는 단어는
믿는 이들이 거듭났을 때 받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완전히 자라고 온전해진 것을 가리킨다.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형상을 이룬 놀라운 술람미가 될 것이다.
술람미는 솔로몬의 복사판으로서, 그리스도의 배필이자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보여 주는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상징이다.

2025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국제 현충일 쉬임 특별 집회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신부를 준비함

메시지 1
신부 — 주님의 회복의 목표

성경: 계 19:7-9, 요 1:29, 3:29, 아 1:2-3, 8:14

- I. 성경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거룩한 의미에서 우주적인 한 쌍의 로맨스이다. 이 한 쌍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은 신부이다 — 요 3:29, 마 25:6, 계 19:7, 21:2, 22:17.**
- A. 역대로 하나님은 사람과 사랑에 빠져 계셨다. 하나님은 배필을 얻으시려는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 창 1:26.
- B.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시며, 사랑하는 분이신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 막 12:30, 엡 3:14-19.
- C. 성경 전체는 신성한 로맨스이며, 아가는 이 로맨스의 요약본이다 — 아 1:2-3, 8:14.
1. 성경은 로맨틱한 책이며,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로맨틱하게 되어야 한다.
 2. 만일 우리와 주 예수님 사이에 로맨스가 없다면, 그때 우리는 로맨틱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다 — 아 1:2-3.
 3. ‘로맨스’는 신성한 구애에 관한 이야기이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구하고 계심을 본다 — 고후 11:2.
 4. 아가는 로맨스 이상의 것이다. 아가는 환상적인 로맨스이다.
- D.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든지 우리의 온 마음, 심지어 우리의 온 존재는 그것에 고정되고 사로잡히고 점유된다 — 딤후 6:10-11, 딤후 3:2-4, 4:8, 10상, 딤후 1:8.
1.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영과 혼과 몸, 또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막 12:30)—를 절대적으로 그분께 두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온 존재가 그분으로 점유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전 2:9 각주 1)
 2.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존재를 그분께 향하게 하며, 그분께 열어 드리고, 그분을 누리며, 그분께 첫째 지위를 드리고, 그분과 하나 되며, 그분을 살고, 그분이 되는 것이다 — 마 26:6-13, 고후 3:16, 막 12:30, 골 1:18, 고전 6:17, 빌 1:20-21, 영한 동변 찬송가 477장 2절(한국복음서원 찬송가 366장 2절).
- II.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밝혀 준다.**
- A. 어린양의 결혼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완성된 결과이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그리스도의 법리적인 구속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의 유기적인 구원에 의해, 그리스도를 위해 신부인 교회를 얻는 것이다 — 창 2:22, 롬 5:10, 계 19:7-9, 21:2, 9-11.
- B.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모든 이기는 이들로 구성된다 — 계 19:7-9, 비교 창 2:22, 마 16:18.
- C. 모든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 년 동안 신성한 초기 단계의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 — 계 19:7.
- D. 결국 모든 믿는 이들은 이기는 이들과 합하여져,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완전히 완결하고 완성할 것이다 — 계 21:2, 9-11.

Ⅲ. 신부는 주님의 회복의 목표이다 — 계 19:7-9.

A.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 계 19:7.

1. 요한은 그의 복음서의 시작에서 어린양과 신랑에 대해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다고 말한다 — 요 1:29, 3:29.
2. 대부분의 성도들의 휴거(계 14:16, 살전 4:15-16)가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보상을 위한 심판(계 11:18, 고후 5:10)이 있는 직후에 이어지는 일들에는 틀림없이 어린양의 결혼이 있을 것이다(계 19:7하).
 - a.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보상을 받는다면 결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 b. 우리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주님께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멸망하지는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묘사된 것처럼 손실을 입을 것이다.

B.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 계 19:7하.

1. ‘그분의 아내’는 교회(엡 5:24-25, 31-32), 곧 그리스도의 신부(요 3:29)를 가리킨다.
2. 요한계시록 19장 8절과 9절에 따르면, 천년왕국 동안 아내인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기는 믿는 이들로만 구성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아내인 신부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지며, 천년왕국 이후 영원토록 있게 된다.
3. 신부가 준비되는 것은 이기는 이들의 생명의 성숙에 달려 있다 — 계 19:7, 히 6:1, 빌 3:12-15, 엡 4:13.
4. 우리는 금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진주이신 아들 하나님과 보석들이신 영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단장하고 완결해야 한다 — 계 21:2, 19상, 고전 3:12, 아 1:10-11.
5. 이기는 이들은 분리된 개인들이 아니라 단체적인 한 신부이다.
6. 이기는 이들은 생명이 성숙할 뿐 아니라 한 신부로 함께 건축되어 있다.

C.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 계 19:8.

1. ‘깨끗한’은 본성을 가리키고, ‘빛나고’는 표현을 가리킨다.
2. ‘의’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의로운 행실’로 번역될 수도 있다.
3. 이 절에서 ‘의’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받은 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 고전 1:30.
4. 구원을 위해 받은 의는 객관적인 것이며,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이기는 성도들의 의는 주관적인 것이며(빌 3:9), 이 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5. 따라서 세마포는 우리의 이기는 생활, 이기는 삶을 가리킨다. 세마포는 바로 우리가 우리 존재로부터 살아 낸 그리스도이다.

D.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 계 19:9.

1. 어린양의 결혼 잔치는 마태복음 22장 2절에 나오는 결혼 잔치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루와 같은 천 년 동안의 왕국이며, 이기는 믿는 이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진다 — 계 19:9, 마 22:2, 11-14, 벧후 3:8.
2. 이기는 믿는 이들을 천년왕국의 누림 안으로 이끄는 그리스도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는 것은 복된 것이다 — 계 19:9.
3.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나오는 어린양의 결혼 잔치는 마태복음 22장 2절에 나오는 결혼 잔치이다. 이것은 이기는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일 것이다.
 - a. 부름받는 것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롬 1:7, 고전 1:2, 엡 4:1), 선택받는 것은 보상을 받는 것이다.
 - b. 오직 이기는 이들만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결혼 잔치에 초대받을 것이다.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이 결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 c.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을 이기는 믿는 이들은 또한 어린양의 신부일 것이다 — 계 19:8-9.

메시지 2 신부의 건축

성경: 창 1:26, 2:7-10, 18-25, 계 19:7-9, 21:9-11

I. 하나님의 건축물은 성경 전체에서 중심적인 문제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삼일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 셨다.” — 창 2:22.

- A. 성경 전체는 건축 설명서에 비유될 수 있다. 성경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시작인 에덴동산에 관한 계시와 신성한 계시의 끝인 새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는 일맥상통한다.
- B. 성경의 이 두 부분에 계시된 것이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고,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이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에 통제하는 원칙이다.
 - 1.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신성한 건축물(히 11:10)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건축 계획의 청사진이다. 하나님의 갈망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재적인 조성 안으로 건축하셔서 우리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로 재조성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권위를 갖고 그분을 대표할 단체적인 한 사람을 얻으실 수 있다(창 1:26, 고전 3:9, 마 16:18, 삼하 7:12-14상).
 - 2.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라는 완성된 건축물을 보여 주는 사진이다. 새 예루살렘은 에덴동산에 관한 신성한 계시의 반영과 성취이다.
 - 3. 그리스도는 신랑으로서 돌아오셔서 이기는 이들의 총체인 그분의 신부와 결혼하실 것이다. 이 시대에 이기는 이들에 의해 수행되는 이 건축은 왕국 시대에 있을 새 예루살렘의 초기 완결을 위한 것이며(계 19:7-9), 최종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새 예루살렘의 완전한 완결을 위한 것이다(21:2).
 - 4. 성령께서 모든 세기에 걸쳐 계속 일하심으로써, 이 목표가 이 시대의 마지막에 성취될 것이다. 그 때 이기는 믿는 이들인 신부가 준비될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오게 될 것이다 — 마 26:29, 13:43.
 - 5. 단체적인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목적의 두 방면(창 1:26)을 성취할 것이다. 첫째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할 것이다(계 21:11, 비교 4:3). 둘째로, 이 새 예루살렘은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원수를 굴복시키고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할 것이다(창 1:26, 계 22:5, 비교 20:10, 14-15).
- C.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는 하와가 아담의 생명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된다. 바로 이 생명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실 수 있다 — 창 2:21-22.

II.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둘 사이에 상호적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남녀 간의 다정한 사랑과 같다 — 요 14:21, 23, 롬 2:2, 31:3.

- A.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간을 들여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교통할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요소를 그들에게 주입하심으로써 그들을 그분의 배필로서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어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신다 — 시 119:140, 15-16.
- B.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을 주입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을 산출 하셨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한다 — 요일 4:19-21.
- C.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생명은 사랑의 생명이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사셨고,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일한 사랑의 생명을 살고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요일 3:14, 5:1, 2:5-6, 4:17.

- D. 우리의 타고난 사랑은 십자가에 두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타고난 사랑의 한 가지 차이는 우리의 타고난 사랑은 매우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다.
- E. 우리는 홍수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기고 밀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신성한 사랑은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큰 파도와 같아서, 우리를 강권하여 그분을 향하여 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 고후 5:14.
- F. 형제 사랑에 관한 계명은 옛 계명이면서 또 새 계명이기도 하다. 옛 계명인 이유는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새 계명인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할 때에 이 계명은 새로운 서광으로 비치고, 그 후에도 새로운 빛과 신선한 능력으로 계속해서 비쳐 주기 때문이다 — 요일 2:7-8, 3:11, 23, 비교 요 13:34.
- G.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엡 4:16).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듭난 영은 사랑의 영이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타락을 이기기 위하여 불타는 사랑의 영이 필요하다(딤후 1:7).
- H.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고전 8:1하, 비교 고후 3:6)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표시이다(요 13:34-35).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것은 모든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반대된다(요삼 9).
- I.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혼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는 몸의 생활을 실행하면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혼생명을 잃어버리고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 — 요일 3:16, 4:17과 각주 5, 요 10:11, 17-18, 15:13, 엡 4:29-5:2, 고후 12:15, 롬 12:9-13.
- J. 사랑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이다 — 고전 12:31하-13:8상.

Ⅲ.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위한 배필을 산출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야 한다.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의 예표를 통해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에 대한 그림을 보여 준다.

- A. 아담은 우주적인 참남편으로서 자신을 위한 한 아내를 찾고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예표한다 — 롬 5:14, 비교 요 3:29, 고후 11:2, 엡 5:31-32, 계 19:7-9, 21:9-11.
- B.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도울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 창 2:18.
 - 1. 아담에게 아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자신의 배필, 곧 짝(직역하면, 맞은 편 짝)이 되는 아내가 필요하시다는 것을 예표하고 묘사한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영원히 온전하시지만, 그분의 아내인 교회가 없이는 완전하지 않으시다.
 - 2.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담과 교회를 예표하는 하와를 둘 다 갖기 원하신다. 그분의 목적은 ‘그들이 통치하게 하는 것’(창 1:26)이다. 그분의 목적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에 더하여 승리한 교회를 얻으시는 것, 곧 마귀의 일을 이기신 그리스도에 더하여 마귀의 일을 전복시킨 교회를 얻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롬 5:17, 16:20, 엡 1:22-23).
- C. 하나님은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지으신 다음 아담에게 데려가셨고, “그 사람이 모든 가축과 하늘의 새들과 들의 온갖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런데 아담은 그 가운데서 자신을 도울 배필을 찾지 못하였다.” — 창 2:19-20.
- D. 아내는 반드시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남편과 같아야 한다. 아담은 가축이나 새나 짐승 가운데서 자신을 위한 짝, 곧 자신과 어울릴 수 있는 짝을 찾지 못하였다 — 창 2:23.
- E.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 예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한 짝을 산출하시기 위해 먼저 사람이 되셨다 — 요 1:14, 롬 5:14.
- F.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자, 그가 잠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 창 2:21.

1. 아담이 아내인 하와를 산출하기 위해 깊이 잠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배필인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여 주는 예표이다 — 엡 5:25-27.
 2.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의미한다 — 고전 15:18, 살전 4:13-16, 요 11:11-14.
 3. 그리스도의 죽음은 생명을 해방하고, 생명을 나누어 주며, 생명을 번식시키고, 생명을 번성시키며, 생명을 재생산하는 죽음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자라서 많은 밀알을 맺는 것으로 상징된다(요 12:24). 이러한 밀알들은 떡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이 떡은 몸인 교회이다(고전 10:17).
 4.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 안에 있던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었고, 해방된 이 신성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되어 교회를 조성하게 된다 — 눅 12:49-50, 비고 롬 12:11, 계 4:5.
 5.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과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사람 안으로 일해 넣으셨고,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의 배필로서 그분과 어울리도록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 G.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 — 창 2:22.
1. 아담의 열린 옆구리에서 빼낸 갈빗대는 그리스도의 부서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보여 주는 예표이다(히 7:16, 요 19:32-33, 36, 출 12:46, 시 34:20). 이 영원한 생명은 창에 찢린 그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와(요 19:34), 믿는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어 그분의 배필인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한다.
 - a.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는 피와 물이 나왔지만,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은 피 없이 갈빗대 뿐이었다.
 - b. 그것은 아담의 때에는 죄가 없었으므로 피를 통한 구속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잠들어 계셨을’ 때에는 죄의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는 우리의 법리적인 구속을 위한 것이었다.
 - c. 피에 이어 물이 나왔는데, 이 물은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흐르는 생명을 가리킨다(출 17:6, 고전 10:4, 민 20:8). 아담의 옆구리에서 빼낸 갈빗대는 신성하고 흐르며 창조되지 않은 이 생명을 예표한다(롬 5:10).
 2. 창세기 2장 22절은 하와가 창조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건축되었다고 말한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빼낸 갈빗대로 하와가 건축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부활 생명으로 건축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표인데, 이 부활 생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에게서 해방되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된 생명이다 — 요 12:24, 벰전 1:3.
 3. 참하와인 교회는 모든 믿는 이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총체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생산이다. 그리스도의 요소 이외의 다른 요소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 창 5:2.
- H.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함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분의 짝이 될 수 있다(고전 12:12, 엡 2:6, 5:28-30).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순수한 산출물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하고’, ‘부활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다.
- I. 아담과 하와는 하나가 되어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하였다(창 2:24-25).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우주적인 남편이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아내인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사람들과 함께 영원토록 결혼 생활을 하신다는 것을 묘사한다(계 22:17상).
- J. 끝없는 영원 안에서 그들은 신성하고 영원하며 비할 데 없이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한 영으로 연합된 생활, 즉 지극히 뛰어나고 축복과 기쁨이 넘쳐흐르는 생활을 할 것이다.

메시지 3
신부의 성숙

성경: 계 19:6-9, 요 3:29, 약 5:7, 마 5:48, 골 1:28-29, 3:10-11

I. '성숙한'에 대한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마지막 지점에 이른'이다.

- A.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신진대사적으로 바뀌는 것이지만, 성숙되는 것은 우리를 바꾸어 주는 신성한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 히 6:1, 골 4:12, 롬 12:2, 벧후 1:3.
- B. 변화의 마지막 단계는 성숙 곧 생명의 충만이다 — 벧후 1:4.
- C. 성숙한 믿는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알고 돌보면서, 몸을 의식하고 중심 삼는다 — 고전 12:16, 18-19, 21, 24.

II. 신약의 용법에 따르면, '성숙'이라는 단어는 믿는 이들이 거듭났을 때 받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완전히 자라고 온전해진 것을 가리킨다 — 딤후 3:5, 벧전 1:3, 23, 마 5:48.

- A.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기를 추구해야 한다 — 빌 3:12, 14.
- B. 우리는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즉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를 극도로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하게 누리고 얻기를 추구함으로써, 성숙에 이르도록 계속 나아가고 전진해야 한다 — 빌 3:12-15.
- C. 영적 생명 안에서 성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계속 자라는 것이다 — 엡 4:15.
- D.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한 것의 최종 결과는 충분히 성장한 사람 곧 성숙한 사람으로 자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다 — 엡 4:13.

III. 야고보는 그의 서신서에서 농부가 오래 참으면서 땅의 귀중한 열매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예시로 사용한다 — 약 5:7.

- A. 주 예수님은 사실상 참된 농부, 유일한 농부이시다 — 마 13:3.
- B.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기를 오래 참으며 기다리는 동안, 참된 농부이신 주님도 그분의 밭의 첫 열매와 곡식인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숙하기를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 — 계 14:4, 14-15.
- C. 우리가 “주님, 속히 돌아오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내가 돌아오기를 너희가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희가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성숙해야만 내가 돌아가는 것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 D.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기다린다면, 생명이 자라 성숙에 이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IV. 성숙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 갈 4:19, 고후 3:18.

- A.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해 오셨다 — 고후 3:18, 롬 8:29.
- B. 주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우리 속으로 완전히 일해 넣으시고 우리를 통해 완전히 표현되실 때, 우리는 생명의 성숙에 이를 것이다 — 엡 3:16-17.

V. 아가 3장은 추구하는 이의 성숙을 우리에게 보여 주며, 4장은 의지를 복종시킴으로 그러한 성숙에 도달한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추구하는 이가 성숙에 이른 비결은 그녀의 의지가 완전히 굴복되고 부활한 것에 있다 — 아 4:4.

- A. 목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사람의 의지를 상징한다. 주님은 우리의 의지가 복종하는 것을 매우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신다 — 아 4:1하, 4.
- B. 우리에게 복종하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의 의지는 전쟁을 위한 온갖 무기를 보유한 다윗의 망대와 같게 된다.
 - 1. 우리의 의지는 먼저 굴복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의지는 부활 안에서 강해질 것이며,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고인 다윗의 망대와 같이 될 것이다 — 엡 6:10.
 - 2.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는 우리의 굴복되고 부활한 의지 안에 보관된다 — 고후 10:3-5.

Ⅵ.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한 새사람을 위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 곧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 — 골 1:28-29, 3:10-11.

- A.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충분히 성장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온전한’, ‘완전한’, 혹은 ‘성숙한’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
- B. 바울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함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완전한 성장에 이르게 하여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었다.

Ⅶ. 창세기 37장부터 47장까지는 야곱이 성숙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 A. 우리는 창세기 27장에서 빼앗는 사람을 보고, 37장에서 변화된 사람을 보며, 47장 마지막에서는 성숙한 사람을 본다.
- B. 변화의 마지막 단계는 성숙, 곧 생명의 충만이다.
 - 1.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오직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는 것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 창 1:26, 골 1:28, 2:19.
 - 2. 성숙은 신성한 생명을 거둬서 우리 안으로 분배받아 결국 우리가 생명의 충만을 갖는 문제이다 — 요 10:10.
- C. 성숙은 용량이 확장되는 문제이다 — 시 4:1.
 - 1. 생명의 성숙은 성령의 징계를 받은 것의 총체이다 — 히 12:5-11.
 - 2. 다른 사람들은 생명이 성숙한 한 사람을 보겠지만, 그 사람이 여러 해에 걸쳐 매일 은밀하게 받아 온 축적된 성령의 징계는 볼 수 없다 — 고후 1:8-10, 창 47:7, 10.
- D. 하나님은 우리를 채운 모든 것을 비워 내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여러 사람과 일과 사건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우리의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 눅 1:53, 마 5:6.
- E. 야곱의 삶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계시해 준다.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 1. 성숙되기 위해 야곱은 먼저 그의 마음의 보물인 요셉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 창 37:31-35.
 - 2. 성숙한 믿는 이는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분으로서 온갖 종류의 상황에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배웠다 — 창 43:11, 13-14, 17:1, 빌 1:19-21상, 4:11-12, 비교 딤후 6:6-8.
 - 3. 성숙한 믿는 이의 신뢰와 안식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능력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그의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 — 롬 9:16.
 - 4. 야곱이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가장 분명한 표시는 그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한 것이었다 — 창 47:7, 10, 48:14-16, 히 7:7.

VIII. 성숙한 신부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목표이다 — 계 19:7-9.

- A. 단체적인 신부가 준비되는 것은 이기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성숙되는 것에 달려 있다 — 계 19:7, 히 6:1, 빌 3:12-15, 엡 4:13.
- B. 어린양의 결혼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완성된 결과이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그리스도의 법리적인 구속을 통해,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구원에 의해, 그리스도를 위해 신부인 교회를 얻는 것이다 — 창 2:22, 롬 5:10, 계 19:7-9, 21:2.
- C.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는 죄를 없애러 오신 어린양과 신부를 얻기 위해 오신 신랑, 이 두 가지로 계시되신다 — 요 3:29.
- D. 그리스도의 목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얻는 것이다.
 - 1.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린양이시자 장차 오실 신랑이심을 본다. 그러므로 신랑으로서 그분은 반드시 결혼식을 치르셔야 한다 — 계 19:7-9.
 - 2. 어린양의 결혼식은 우주적인 결혼식일 것이다. 이것은 구속하신 분과 구속받은 이들의 결혼식일 것이다.
 - 3. 그리스도는 신랑으로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신부로서 갈 것이다.
- E. 매우 핵심적인 문제는 신부가 준비되는 것이다 — 계 19:7.
 - 1. 요한계시록 19장 8절과 9절에 따르면, 천년왕국 동안 아내인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기는 믿는 이들로만 구성된다.
 - 2. 신부가 준비되는 것은 이기는 이들의 생명의 성숙에 달려 있다. 이기는 이들은 분리된 개인들이 아니라 단체적인 신부이다.
 - 3.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큰 무리의 음성이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 주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라고 선포한다.
 - a. 하나님의 다스림, 곧 왕국은 어린양의 결혼과 관계가 있다.
 - b. 결혼식은 주님의 통치 곧 왕국을 이끌어 올 것인데, 이는 결혼식에 초대받은 모든 손님들이 단체적인 신부이자 신랑의 공동 왕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모든 공동 왕들이 그분의 단체적인 신부일 것이다.
 - c. 이기는 이들에게 천년왕국의 천 년은 결혼 잔치일 것이다.
 - d.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모든 이들은 또한 왕들로서 천 년 동안의 통치에 참여할 것이다.
 - e. 이기는 이들에게 있어서,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결혼 잔치일 것이다 — 계 19:9.

메시지 4
신부의 아름다움

성경: 롬 6:19, 22, 엡 5:25-27, 계 19:7-9, 살전 5:23, 아 8:13-14

I.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은 그리스도를 위한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도록 우리가 아름답게 되는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이다 — 살전 4:3상, 벧전 1:15-16, 엡 1:4-5, 5:25-27, 살전 5:23-24, 롬 6:19, 22.

A.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세 단계로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전체를 제시한다.

1. 과거에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법리적인 구속을 이루시려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 엡 5:25.
2. 현재에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교회가 그분의 배필이 되도록 교회를 그분의 요소로 적시시어 교회를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하고 계신다. 이것은 신부를 아름답게 하고 준비되게 하는 유기적인 구원이다 —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 엡 5:26.
3. 장래에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그분의 만족을 위한 그분의 배필로서 자기 앞에 세우실 것이다 —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 이것은 그분 앞에 신부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 엡 5:27.
4. 과거에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고, 현재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계시며, 장래에는 그분의 만족을 위한 그분의 배필인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다.

B. 신부의 아름다움은 교회 안으로 일해 넣어지신 다음 교회로부터 빛나시어 교회를 통해 표현되시는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나온다 — 사 43:7, 엡 3:21.

C. 그리스도는 그분의 남아 있는 백성에게 영광의 면류관과 아름다운 왕관이 되신다 — 사 28:5.

1. 면류관(crown)은 모자나 두건과 같고, 왕관(diadem)은 그 면류관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부분인 머리띠이다 — 출 28:36-39, 29:6, 사 62:3.
2.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운 집인 교회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계속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됨으로 주님에 의해 아름답게 되어, 우리의 아름다운 왕관이신 그분을 소유한 그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이다 — 고후 3:18, 계 19:7-9, 사 28:5, 시 27:4, 사 60:1, 7, 9, 13, 19, 62:3, 계 21:11.

II. 회복 안에서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하시는 주님의 참된 일이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말하는 지속적인 기질상의 거룩하게 함이 없이는 신부가 준비될 길이 없으며, 따라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도 성취될 길이 없다.

A.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우리를 씻기시어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시는데, 교회는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아름답게 되고 있다 — 엡 5:26-27.

1.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생명의 물이신 그 영이 계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 요 6:63.

2.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영이시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우리를 씻겨 주는 말씀이다. 이것은 항상 있는 말씀인 ‘로고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말씀 곧 주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의미하는 ‘레마’를 가리킨다 — 마 4:4, 요 6:63, 계 2:7, 22:17상, 비교 사 6:9-10, 마 13:14-15, 행 28:25-31.
 3.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영이다. 그분의 말씀하심이 바로 생명 주시는 영의 임재이다 — 요 6:63, 엡 6:17.
 4. 생명 주시는 영이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항상 즉각적인, 현재의, 살아 있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신진대사적으로 옛것을 씻겨 내시고 새것으로 대체하시어 내적 변화를 가져오신다.
- B. 이렇게 씻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그리스도에 의해 아름답게 되어,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분의 신부, 곧 흠이나 결함이 없는 신부가 된다 — 계 19:7, 비교 아 6:13, 8:13-14.
- C.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에 의해 교회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신성한 사상에 따르면, 여기에서 ‘물’은 흐르는 물로 예표된 하나님의 흐르는 생명을 가리킨다(출 17:6, 고전 10:4, 요 7:37-39, 계 7:17, 21:6, 22:1, 17).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지금 우리는 이러한 씻는 과정에 있다.
- D.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씻는’에 대한 헬라어는 직역하면 ‘물두멍’이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땅에 속한 더러운 것들을 씻기 위해 물두멍을 사용했다(출 30:18-21). 매일 아침저녁으로 우리는 성경 앞에 나와서 말씀 안에 있는 물두멍의 물로 깨끗이 씻겨야 한다.
- E. 바울은 말씀과 말씀으로 씻는 과정에 대해 말할 때 ‘레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한다(엡 5:26). 로고스는 객관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레마는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막 14:72, 눅 1:35-38, 5:5, 24:1-8).
- F. 레마는 개인적이고도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레마는 우리가 무엇을 처리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깨끗이 씻어 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눅 물두멍은 비추고 드러낼 수 있는 거울이었다 — 출 38:8). 우리 각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이다.
- G. 우리가 항상 보배롭게 여기는 한 가지는 오늘 주님께서 여전히 개인적이고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참된 생명의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직접 말씀을 받는 것에 달려 있다. 오직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말씀만이 참된 영적인 가치를 지닌다 — 히 3:7-11, 15, 4:7, 시 95:7-8.
- H. 우리 기도의 중심 요점은 주님의 말씀하심을 갈망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하심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배필인 신부를 얻으시려는 그분의 마음의 갈망에 따라 그분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 계 2:7, 비교 삼상 3:1, 21, 암 3:7.
- I. 매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임재는 주님의 말씀하심과 하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은 바로 생명 주시는 영의 임재이다.
- J.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씻는 물이다. 이러한 씻는 물은 새 요소를 우리 안으로 넣어 우리의 본성과 기질에 있는 옛 요소를 대치한다. 이러한 신진대사적인 씻음은 생명의 참되고 내적인 전환을 가져오는데, 이것이 기질적인 거룩하게 됨과 변화의 실재이다.
- K. 우리는 생명 주시는 영, 곧 우리의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아름답게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 가고 있다 — 엡 5:26-27, 계 2:7.

Ⅲ. 에베소서 5장 27절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결국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을 표현하는 교회가 될 것임을 계시한다.

- A. 우리의 유일한 아름다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빛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감상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의 표현이다 — 시 50:2, 고후 3:15-18, 비교 출 28:2.

1. “네 눈은 아름다움을 지닌 왕을 보게 되며”(사 33:17상), “왕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 것입니다.”(시 45:11상)
 2. “내 사랑이여, 그대는 디르사만큼이나 아름답고 / 예루살렘만큼이나 사랑스러우며 / 깃발을 든 군대만큼이나 두렵게 한다오.” — 아 6:4.
- B. 신부가 준비된다는 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계 19:8)이다. 이 세마포 옷이 신부의 아름다움이다.
- C. 결혼식 날 신랑은 신부의 능력보다 아름다움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의 하나님인 주 예수님은 우리의 인성을 통해 표현된 그분 자신의 아름다움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신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신부로 준비되어 그분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매일 그리스도에 의해 아름답게 되어야 한다.
- D. 우리가 시간을 들여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고 율조림으로(엡 6:17-18, 시 119:15)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주목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 아름다워져 그분의 아름다운 집이 됨으로써 그분 또한 아름다워지시게 할 것이다(시 27:4, 고후 3:18, 사 60:7하, 9하, 13하, 19하, 21하).
- E.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은 주로 점과 주름을 처리한다. 점이란 타고난 생명에 속한 어떤 것을 가리키고, 주름은 늙음과 관계가 있다. 오직 생명의 물만이 생명의 변화에 의해 그러한 결점들을 신진대사적으로 씻어 낼 수 있다.
- F. 거룩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다. 흠이 없다는 것은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것으로서, 옛사람의 타고난 생명에 속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 — 비교 아 4:7.
- G. 또한 교회는 ‘그 같은 것들’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이런저런 결함’이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도 비난받을 것이 전혀 없는 상태로 교회를 이끄실 것이다 — 엡 5:27.

IV.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은 아가 8장 13절과 14절과 일치한다. 둘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을 앙망하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된다는 것을 계시한다 — “동산들에 거하시니 이여, / 나의 벼들이 당신 목소리에 귀 기울이니 / 나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 주세요. / 내 사랑하는 이여, 속히 오셔서 / 향기 그윽한 산들 위에 있는 /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처럼 되어 주세요.”

- A. 아가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추구하는 이는, 벼들이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니 자신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 달라고, 그분의 동산들인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시니 그분께 요청한다 — 아 8:13, 비교 4:13-16, 5:1, 6:2.
1. 이것은 그리스도의 연인인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일할 때 언제나 그분께 귀 기울이며 그분과 교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 눅 10:38-42.
 2. 우리의 생활은 주님의 말씀에 달려 있고, 우리의 일은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다(계 2:7, 삼상 3:9-10, 비교 사 50:4-5, 출 21:6).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왕이시자(사 6:1, 5) 우리의 주님이시자(고후 5:14-15) 우리의 머리이시자(골 2:19) 우리의 남편이신(고후 11:2)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계시나 빛이나 개인적인 인식도 얻지 못할 것이다. 믿는 이들의 생활은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하심에 달려 있다(엡 5:26-27).
- B. 시적인 책인 이 아가의 결론을 맺는 기도로서, 그리스도의 연인은 사랑하는 그분께 부활 능력(가젤과 젊은 수사슴) 안에서 속히 오셔서 온 땅을 가득 채울 그분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왕국(향기 그윽한 산들)을 세우시기를 기도한다 — 아 8:14, 계 11:15, 단 2:35.
1. 그러한 기도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연인 사이의 혼인의 사랑 안에서의 연결과 교감을 묘사하는데,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연인인 요한의 기도가 성경의 결론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성한 사랑 안에 있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계시해 주는 것과 같다 — 계 22:20.
 2. “주 예수님, 오십시오!”(계 22:20)는 성경에 있는 마지막 기도이다. 성경 전체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는 하나의 기도로 끝맺는다.

메시지 5
신부의 의

성경: 계 19:7-9, 마 5:20, 6:33, 22:2, 고후 5:21, 요일 1:7, 9, 계 15:3

I. 하나님의 의는 행동에 있어서 정의와 의와 관련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다 — 계 15:3, 롬 1:16하-17상, 요 3:16, 요일 1:9.

- A.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하나님의 의의 기초에 달려 있다.
- B. 이 기초는 하나님의 보좌의 흔들리지 않는 기초인 하나님의 의이다 — 시 89:14.

II. 의의 정의에는 네 방면이 있다.

- A. 의는 하나님의 의롭고 엄격한 요구들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사물들과 일들에 대해 올바른 것이다 — 마 5:20.
- B. 의는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외적인 표현이다 — 고후 3:8-9.
 - 1.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의이다 — 엡 4:24, 골 3:10.
 - 2. 의의 사역은 주님의 형상의 사역이다 — 고후 3:9.
- C. 의는 하나님의 왕국의 문제이다 — 마 6:33, 시 89:14.
 - 1. 하나님의 왕국은 의이다.
 - 2. 의는 하나님의 통치와 행정과 다스림과 관계있다.
- D. 의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되는 문제이다 — 고후 5:21.
 - 1. 우리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께 올바른 것은 내적 존재를 투명하고 수정처럼 맑게 하는 것, 곧 우리의 내적 존재를 하나님의 생각과 뜻 안에 두는 것이다.
 - 2.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문제이다 — 고후 5:21.

III. 의는 하나님의 외적인 행동과 길과 움직임과 활동에 관계된다 — 계 15:3.

- A.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다 — 롬 1:16-17.
- B. 정의와 의와 관련된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이 그분의 의를 구성한다.

IV.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의로우시다 — 요일 1:7, 9.

- A.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요일 1:10)에 대하여 신실하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의로우시다.
- B.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엡 1:13)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행 10:43)과,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이다(마 26:28).
- C.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죄들의 허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불의의 오점을 씻기시는 것이다.

V. 의는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있다 — 롬 14:17.

- A. 교회생활은 하나님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왕국은 의이다.
- B. 하나님의 보좌는 의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다 — 시 89:14.
- C.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왕국도 있다 — 사 32:1, 히 1:8-9.
- D. 구약에서 의는 자주 왕국과 같은 의미였다.
- E. 의가 있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합당하게 한 머리 아래 통일된다. 이것이 왕국이다.

- F. 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결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
1.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의와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2. 로마서 14장에서 우리는 의와 하나님의 왕국을 본다.
 3. 형상과 왕국은 둘 다 의에 근거한다.
- G. 의가 새 하늘들과 새 땅에 거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벧후 3:13)은 모든 것이 질서 있고 한 머리 아래 통일되며 규제될 것임을 의미한다.
1. 모든 것이 통치와 통제와 합당한 다스림 아래 있을 것인데, 이는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와 왕국과 신성한 행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그 결과는 평안과 기쁨일 것이다.

VI.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서 우리는 신부의 의를 본다.

- A.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에게 의가 되시는 것에는 두 방면이 있다.
1. 첫째 방면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갔을 때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의가 되시는 것이다 — 롬 3:24-26, 행 13:39, 갈 3:24상, 27.
 2. 둘째 방면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타남이신 그리스도를 살아 냄으로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의 의가 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믿는 이들이 주관적으로 의롭게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의이다 — 롬 4:25, 벧전 2:24, 약 2:24, 마 5:20, 계 19:8.
 3. 우리의 객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는다 — 롬 3:24, 28, 4:25, 5:1, 9, 16, 18.
 4. 우리의 주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고 항상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생활을 하신다 — 마 5:6, 20.
- B. 성도들이 그들의 주관적인 의로 살아 낸 그리스도가 그들의 결혼 예복이 되신다 — 계 19:8.
1. 구원을 위해 우리가 받은 의는 객관적인 것이며,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반면에 이기는 성도들의 의는 주관적인 것이며, 이 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 고전 1:30, 빌 3:9.
 2.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에서 결혼 예복은 우리가 살아 내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뛰어난 의로 표현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 마 5:20, 계 3:4-5, 18.
- C. 주님의 신부 곧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 계 19:7하-8.
1.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분명하게 옷과 의를 연결한다.
 2. 8절에서 ‘의’라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의로운 행실’로 번역될 수 있다.
 3. 이 의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받아들인,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는다 — 고전 1:30.
 4. 세마포 옷은 우리의 이기는 생활, 우리의 이기는 삶을 가리킨다.
 5. 세마포 옷은 우리의 존재로부터 살아 나타나신 그리스도이다.
- D.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그들(이기는 성도들이) 복이 있습니다.” — 계 19:9.
1. 여기의 어린양의 결혼 잔치는 마태복음 22장 2절에 나오는 결혼 잔치이다.
 2. 그리스도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는 것은 복된 일이다.
 3.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을 이기는 믿는 이들은 또한 어린양의 신부일 것이다 — 계 19:7.

* 영어 ‘회복역 성경’ 참고—역자 주

메시지 6
단체적인 전투원인 신부

성경: 엡 6:10-20

I.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신부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하나님의 원수와 맞서 싸우는 단체적인 전투원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 A.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기는 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분의 거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거처는 디르사만큼 아름답고 예루살렘만큼 사랑스럽다. 그러나 원수에게는 깃발을 든 군대만큼 두렵다 — 아 6:4.
1. 깃발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키며 또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표시하기도 한다. 두려운 군대는 주님의 이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두렵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이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싸우며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이기는 이들이 된다(계 2:7, 11, 17, 26, 3:5, 12, 21). 결국 이기는 이들은 단체적인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와 결혼할 것이다(계 19:7-9). 결혼식 후에 이 신부는 군대가 되어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싸워 적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추종자들을 패배시킬 것이다(계 19:11-21).
- B. 신부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단체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이중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 창 1:26.
- C.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의 갈망이 만족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또한 패배당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교회는 전투원이 되어야 한다.
- D.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기 위한 것이다 — 엡 4:1, 5:2, 8, 6:10-11.

II. 천년왕국 동안의 예수님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신부, 곧 그리스도의 공동 왕들이 이기는 이들이다 — 계 19:7-9, 20:4, 6.

- A.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계 19:7-9, 21:2). 궁극적으로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형상을 이룬 놀라운 술람미가 될 것이다. 술람미는 솔로몬의 복사판으로서, 그리스도의 배필이자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보여 주는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상징이다(아 6:13, 계 21:2, 9-10, 22:17상).
- B. 술람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춤추는 두 군대 혹은 두 진영(히브리어로 '마하나임')에 비유된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 곧 하나님의 두 군대를 본 후에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고,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자신의 소유를 '두 군대'로 나누었다 — 아 6:13, 창 32:1-10.
1. 두 군대의 영적인 의미는, 두 군대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의 원칙에 따라 넉넉히 이겨 '대승을 거둔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라는 것이다 — 롬 8:37, 12:5, 신 32:30, 전 4:9-12.
 2. 하나님은 그들 자신 안에서 강한 이들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연약한 이들, 더 약한 이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원하신다. 이기는 이들로 여겨지는 이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더 약한 이들일 것이다 — 고전 1:26-28, 고후 12:9-10, 13:3-5, 아 8:6.
 3. 하나님은 그분과 하나인 한 백성, 곧 뺏은 머리(아 1:10상)로 상징되듯이 그분께 복종하고, 보석 꿰미들로 꾸며진 목(아 1:10하)으로 상징되듯이 유연한 의지로 그분께 순종하는 한 백성이 필요하다.
 4. 우리는 어떻게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도달할지를 고려할 때,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를 긍휼과 존귀와 영광의 그릇들로 만드시는 사랑과 능력과 긍휼이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 롬 9:16, 21-23.

Ⅲ. 영적 전쟁이 필수적인 것은 사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정면으로 대립하기 때문이다 — 엡 1:5, 9, 11, 마 6:10.

- A.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 이외에 또 다른 의도, 또 다른 의지가 있는데, 이는 사탄의 의지가 신성한 의지에 대항하기 때문이다 — 사 14:12-14.
- B. 모든 전쟁의 근원은 사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의 충돌에 있다.
- C.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의 전쟁이다. 천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 — 마 12:26, 28, 계 12:11.
- D. 우리는 진리에 따라 은혜로 행하고, 사랑과 빛 안에서 살며, 사탄의 의지를 굴복시키기 위해 싸운다 — 엡 4:1, 5:2, 8, 6:12.

Ⅳ.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려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힌 큰 능력, 곧 공중의 모든 악한 영들보다 훨씬 위에 앉게 한 큰 능력으로 굳세어져야 한다 — 엡 6:10, 1:19-22.

- A.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세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자신 안에서는 사탄과 그의 악한 왕국에 대항하여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와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만 싸울 수 있다.
- B. 굳세어지라는 명령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 굳세어지려면,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강해야 하고 사용되어야 한다 — 아 4:4, 7:4.

V. 교회와 사탄 사이의 전쟁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와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세력들 사이의 전투이다 — 엡 6:12.

- A.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은 반역한 천사들이다. 그들은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사탄을 따랐고, 지금은 하늘들의 영역에서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다 — 골 1:13, 단 10:20.
- B. 우리는 우리의 전쟁이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들, 곧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Ⅵ. 영적 전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단체적인 전투원인 그리스도의 신부의 문제이다 — 엡 6:13.

- A. 교회는 단체적인 전투원이며, 믿는 이들은 함께 이 단체적인 전투원을 구성한다. 단체적으로 한 군대로 편성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에게 대항해 싸울 수 있을 것이다.
- B. 하나님의 전략은 교회를 원수와 대항해 싸우는 그분의 군대로 사용하시는 것이며,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에서 고립시키는 것이다.
- C.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는 몸을 위한 것이지 개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직 단체적인 전투원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를 입을 수 있다.

Ⅶ. 영적 전쟁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해야 한다 — 엡 6:11.

- A. 우리의 생활의 실재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위해 우리의 온 존재를 강하게 하는 허리띠이시다 — 엡 6:14상.
- B. 우리의 양심을 덮고 사탄의 비난에서 우리를 지켜 주는 의의 가슴받이는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이다 — 엡 6:14하, 고전 1:30.
- C.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되기 위한 화평이시다. 이 화평은 우리가 원수에게 대항해 설 수 있게 하는 견고한 기초이다 — 엡 2:15, 6:15.
- D. 믿음은 원수의 불화살을 막는 방패이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시다 — 엡 6:16, 히 12:2.

- E. 우리의 생각을 덮는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체험하는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다 — 엡 6:17상, 요 16:33.
- F.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영의 검은 공격 무기이며, 우리는 이 무기로 원수를 산산조각 낸다 — 엡 6:17하.
- G.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를 적용하는 유일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며, 각 전투 장비를 우리에게 실지적으로 유용하게 한다 — 엡 6:18.

VIII.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함으로 우리는 마귀의 계략, 악한 책략에 대항해 설 수 있다 — 엡 6:11, 13-14.

- A. 그리스도와 함께 앓는 것은 그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분의 몸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며, 그분의 능력 안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에게 대항해 싸우는 것이다 — 엡 2:6, 4:1, 5:2, 8, 6:11, 13-14.
- B. 원수에게 대항해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처리한 후에도 끝까지 서 있어야 한다.

IX. 우리 모두는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가 전쟁터에 있음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공중에 있는 사탄의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확산시켜서, 그리스도께서 땅을 유업으로 받으시기 위해 다시 오실 수 있게 할 수 있다.